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새로운 역사흐름 계기”

통일 한반도 ‘원코리아국제포럼’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과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는 장이 열렸다.

세계평화를 위한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원코리아국제포럼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자유통일한국: 동북아와 세계평화변영의 촉진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거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개최돼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 미·중 지정학적 대립 심화, 러·우 전쟁, 북·러 군사 거래 등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반으로 현 정부에 안보를 넘어 통일 한반도 실현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과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 경제, 외교, 안보, 시민사회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인 해법들을 제안했다.

포럼은 개회식 및 전체회의에 이어, 예칭 리 글로벌피스재단 동북아평화 및 개발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평화와 안보’ 세션과 존 디슨 글로벌피스재단 정부 및 경제 관계 선임고문이 사회를 맡은 ‘통일 경제’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 및 전체 회의는 김충환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김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겸 창설자(54)가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창설회장의 축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존 해럴드 탈렐리 주니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특별연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의 기조연설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김 플린 회장은 “이번 포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자유통일한국: 동북아와 세계평화변영의 촉진제’를 주제로 열린 ‘원코리아국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전략적 로드맵을 경청했다. /제공=글로벌피스재단

한반도 통일·국제 공조 방안 제시
미중 대립·러우 전쟁 등 복합 위기
경제·안보 등 종합적 해법 모색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지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향후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세계평화 발전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김진표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은 외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듯이 지금이야말로 남북대화와 국제적 협력에 더욱 집중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한 만남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제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겸 창설자는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이 자신들의 기본가치를 놓고 갈등함에 따라 세계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권위가 약화됨으로써 지정학적 현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서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초가 비판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의 두 가지 도전 과제로 “분단된 한민족의 통일”과 “한국인의 정체성 재발견”을 언급하며 “한국인의 정체성 재발견이 통일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

했다. 또한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 정신에 부합하는 이상국가를 창건하고자 했던 3·1운동 정신이 구현된 통일 한반도 비전인 ‘코리아드림’ 운동의 의미를 설명하며 “코리아드림이 모든 한국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전”임을 역설했다.

특별연설에 나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포럼 주제 ‘자유통일한국’은 안보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정치사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라며 “코리아드림 운동을 중심으로 오늘의 만남이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 변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존 해럴드 탈렐리 미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2만8000명의 주한미군을 통해

확고히 증명되고 있다. 수많은 미국의 아들, 딸들이 한국전쟁 당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며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된 통일한국을 실현할 때만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모든 현안 해결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원코리아국제포럼은 2016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 1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피스재단,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원코리아재단 주최로 열렸으며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후원했다. UN 공보국(DPI)의 협력단체이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 지위 단체인 글로벌피스재단은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색의향기,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자유총연맹,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과 함께 코리아드림 1000만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summerrain@

“분열된 나라 하나로 묶을 한국인 정체성 되찾아야”

문현진 의장, 국난 극복 의지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 세계의장 겸 창설자(54)는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 한반도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美)캘리포니아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문 의장은 14년 전 글로벌피스재단을 만들고 세계 평화와 변영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2011년 ‘세상을 넓히기 위해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을 기반으로 통일 국가를 실현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비전 ‘코리아드림’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의장은 “한국 사람들이 직면한 두 가지 과제는 통일과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며 “그 정체성은 단군신화, 홍익인간 정신에 연결돼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뿌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난을 극복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좌익과 우익, 기독교와 불교, 남한과 북한 등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한국인의 정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겸 창설자(54)가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공=글로벌피스재단

체성”이라며 “통일 운동은 정부의 대화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피스재단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에 평화통일 실현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광복 80주년 맞이 코리아드림 1000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색의향기,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자유총연맹,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이다.

문 의장은 “한국의 미래는 코리아드림과 연결돼 있다”며 “지정학적인 국제 상황이 악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혜원 기자

“통일, 선택 아닌 최우선 과제”… 시민 2만여 명 ‘한뜻’

2023 코리아드림 통일실천페스타 부산·대전·광주 등서 릴레이 행사

‘2023 코리아드림 통일실천페스타’가 3일 서울 영등포 공원 문화의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대 간 화합과 대중의 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자리였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대한노인회·대한민국재향경우회·한국예술평화단체총연합회·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한국자유총연맹·사색의향기·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피스재단 등이 후원했다.

1부 개회식에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겸 창설자는 기조 연설을 통해 “우리 시대 코리아드림의 주인이 돼 이루지 못했던 세계의 이상 국가를 만들 때”라면서 “2년 후 백두산에서 통일집회를 하겠다고 약속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조국은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뤄낼 것”이라며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한민족 모두의 생존이 달려 최우선 당면 과제임을 강조했다.

‘탈북민 박사 1호’ 안찬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대표는 “이 자리에는 많은 탈북민들과 2000만 이산가족, 또 애국 시민들이 참석했다”며 “이분들이고 향 땅을 밟고 또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겸 창설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3 코리아드림 통일실천페스타’에서 코리아드림 만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축전을 통해 이번 행사를 축하했다.

2부 세리머니 행사에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남 땅끝마을을 출발해 총 45개 구간 605km의 거리를 행진하고 귀환하는 코리아드림 대행진대원들의 특별한 무대가 공개됐다.

이들은 앞서 ‘2025 광복 80주년 맞이 코리아드림 1000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러시아,

유럽, 몽골 등 29개국 85개 도시를 순방하기도 했다.

이들은 레인보우합창단의 ‘코리아드림’으로 가는 대행진과 시민 대합창 ‘코리아드림 선언문 낭독’ ‘코리아드림 만세 세리머니’ 등을 선보였다.

3부에서는 가수 송가인, 조명섭, 안성준, 김다현, 김수찬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2023 코리아드림 통일실천페스타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 부산, 대전, 충남 천안, 광주, 전북 전주, 대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다혜 기자 eadah@